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Vol.77, No.1(2020), pp. 119-136.
https://doi.org/10.16877/kjds.77.1.202003.119

# 한국사교춤의 '한국화' 연구*

## - 라반동작분석을 중심으로 -

윤 지 현**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사교춤 동작의 한국화 특징
Ⅳ. 한국사교춤 동작의 에포트-셰이프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교춤(Koreanized social dance)[1]의 '한국화(Koreanization)' 특성을 춤의 동작에 생긴 변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사교춤은 유럽의 민속춤에서 유래한 서양의 볼룸댄스가 세계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지역화한 춤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사교춤의 '한국화'를 타문화로부터 유입된 사교춤이 한국의 향유자에 의해 연행되고, 한국문화와 섞이면서 정착되어온 과정이자 결과로 정의한다. 곧 본 연구자는 한국사교춤을 사교춤이 한국문화에 수용되어온 문화상호적(intercultural)[2] 과정에서 출현한 문화혼종화(cultural hybridization) 사례로 이해하며, 춤동작의 특성을 중심으로 세계화된 춤과 춤문화의 지역화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에 동작 특질의 분석을 위해 움직임의 질적 요소를 분석하는 라반동작분석법(Laban Movement Analysis, LMA)의 에포트-셰이프(effort-shape)를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본 연구는 한국사교춤을 구성하는 춤동작이 서양사교춤의 그것과 다르다는 관찰지점에서 출발했으며, 한국사교춤의 춤동작에서 움직임의 한국적 특질을 찾고자 했다. 그간 한국사교춤은 한국사회에서 1백여 년의 수용과정을 통해 독특한 춤 구성과 동작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57888)
** 댄스&미디어연구소 소장, Jhydance@gmail.com

1) '한국사교춤'의 정의와 사례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20세기 중후반 세계화와 21세기 웹기반 디지털화가 가속화된 상황 속에서 세계화된 문화와 지역문화의 접변과 교류 이어진 변용을 관찰하는 개념이자 이론적 틀의 하나인 'Interculturalism'은 국내에서 문화상호주의 또는 상호문화주의 등으로 번역, 혼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문화상호주의로 사용한다.

없었다. 또한 무용학의 움직임 분석도구인 라반동작분석법을 대중적으로 향유되는 춤의 동작 변형을 이해하는데 활용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중춤이자 하위문화의 춤 장르로서 동시대 한국사회에서 향유되고 있는 한국사교춤의 춤 동작에 관한 연구라는 점과 춤의 내재적 구성 요소인 춤 동작에서 음직임의 한국적 특성을 찾고, 이를 춤이 수용된 사회문화적 맥락인 한국문화와 연결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한국사교춤의 동작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함께 영상자료 분석을 병행했다. 일차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사교춤의 동작이 묘사되는 방식과 특징을 조사했다. 문헌조사는 한국사교춤의 동작에 대한 텍스트화된 묘사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텍스트와 영상자료의 녹취문 등 사교춤 향유자에 의해 생산, 유통되는 현장자료 텍스트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헌조사 범위는 학술적으로 검증된 한국사교춤 관련 문헌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 기인했다. 그간 한국사교춤은 무용학계에서 학문적 또는 미학적 저술의 대상이기보다는 대중춤문화이자 춤현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학술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반해 향유현장에서 향유자간 소통과 교류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방대하고, 사교춤의 동작과 구성에 대한 축적자료 또한 많았다. 본 연구는 한국사교춤동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개인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의 광범위한 현장자료에서 춤동작을 묘사한 텍스트를 검색 및 수집했다. 현장 자료의 검독을 통해 한국사교춤의 특성이나 동작 특질 묘사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을 통해 한국사교춤과 춤동작이 이해되는 방식을 관찰했다.

다음으로 춤영상을 수집, 관찰하고, 라반동작분석의 에포트-셰이프 분석을 적용해 동작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이 되는 춤은, 한국사교춤의 세 가지 대표 종목인 지루박과 부르스, 트로트이며, 이들 세 종목의 다양한 변이형을 포함한다. 움직임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로 본 연구자는 2019년 3월부터 7월 사이 3달간 서울의 지역문화센터에서 한국사교춤 강습을 수강하며 참여, 관찰했다. 카바레와 무도장 등 향유현장의 참여관찰을 통해 연행되는 춤동작의 특징을 관찰했다. 이어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영상자료를 검색했으며, 관련 단체와 개인이 게재한 다수의 영상을 참고자료로 시청했다.

한국사교춤의 시연장면을 담은 영상자료는 유튜브와 동호회 등 온라인카페의 자료실, 인터넷포털의 개인 블로그 등에 방대한 수량이 저장 및 공개되어 있다.[3] 영상자료의 조사를 통해 한국사교춤은 국내에서 연행자와 향유지역, 향유집단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이 공존하며, 동시에 향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춤동작의 지속적인 변형과 변이형의 공존은 향유집단들 사이에서 자주 춤동작의 진위 논쟁을 일으키는 소재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버iTV에 방영된 한국사교춤 시연영상을 동작분석을 위한 영상자료로 선택했으며,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부연했다.[4] 당연하게도 실버iTV의 영상자료 또한 선정기준과 시연내용의 대표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동시대 한국 향유자의 향유과정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생성, 유통, 쇠퇴하는 동시대 민속춤[5]이라 할 한국사교춤에 대한 연구라는 점이 연구의 특징인 동시에 제한점이 됨을 밝힌다. 곧 향유현장에서 지속적

3) 윤지현(2017b), 한국 사교춤동호회의 인터넷 매체활용에 대한 연구: 소통과 아카이빙 측면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3), p.102.

4) 네이버TV에 소개된 실버iTV 〈스타Show 리듬댄스〉의 사교댄스 영상을 분석대상으로 수집했다.
실버iTV 스타Show 리듬댄스, "사교댄스", 〈https://tv.naver.com/v/1019304/list/87846, 2018. 5. 30.〉.

5) 윤지현(2017a), 현대 도시민속으로서 한국 사교춤에 대한 문화상호적 접근,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1), p.192.

으로 새로운 변이형과 향유스타일이 출현하는 한국사교춤의 특성상 특정 시연작업을 분석대상으로 고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교춤의 세계화와 한국화

서양사교춤은 세계화된 춤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세계화된 사교춤의 한국적 수용과 그 특징을 '사교춤의 한국화'로 정의한다.[6] '사교춤의 한국화'는 서양의 사교춤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어 한국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춤의 변용양상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향유되는 한국화된 사교춤과 서양 커플댄스의 세계적 표준을 이루는 댄스스포츠는 유럽 중세 말의 민속춤과 절대왕정시대의 궁정사교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두 춤은 하나의 춤에서 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춤의 구성과 움직임이 다르다.

한국사교춤의 유래는 볼룸댄스의 한반도 수용과 연결된다. 다수의 선행연구[7]는 볼룸댄스의 유입과 관련하여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관에 머물던 고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박윤희와 이현정은 1978년『동아일보』기사를 근거로 이보다 빠른 1887년경을 가리키기도 한다.[8] 이들 사이의 약 10년의 시차는 있으나 유럽의 볼룸댄스는 구한말 최초로 수용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교춤은 한국 수용 1백여 년이 넘은 춤이다. 한반도에서 이 춤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유학생을 비롯한 지식인층에 의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에는 미국의 대중문화의 확산과 함께 전국적으로 향유되게 되었다. 1960, 1970년대 한국근대화 시기에는 '춤바람'의 낙인으로 사회적 통제와 금기의 대상이 되었다.[9] 이로 인해 중장년의 대중적 춤문화의 하나로 어렵게 맥을 이어왔다.

본 연구는 한국사교춤에서 관찰되는 춤의 변형을 사교춤의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난 문화적 혼종화의 결과로 파악한다. 한국 향유자에 의한 춤의 변화는 향유방식은 물론 춤동작에도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춤동작은 서구 유럽의 향유자에 의해 전승되던 춤의 형태가 한국 향유자의 체형과 움직임 방식, 춤 향유문화 등과 접촉하는 가운데 변형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춤동작의 변형은 한국 향유자의 움직임, 특히 춤 움직임과의 혼종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사교춤에 관찰되는 춤동작에서 한국인의

---

6) 앞의 글, pp.175-195.

7) 박윤희, 이현정(2013)은 댄스스포츠의 역사를 다룬 다수 선행연구에서 고종의 아관파천을 서양식 볼룸댄스의 한반도 유입기점으로 삼고 있다고 기술한다.
박윤희, 이현정(2013), 신문 기사를 통해 본 한국 볼룸댄스의 고찰: 195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한국체육사학회지』18(1), p.78.

8) 앞의 글.

9) 한국사교춤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춤바람'의 부정적 인식을 다룬 다수 선행연구들이 있다.
윤선자(2005), 1950년대(1953~1961) 사교댄스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도의(道義)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45, pp.223-254; 주창윤(2009), 1950년대 중반 댄스열풍: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한국언론학보』53(2), pp.277-299; 박윤희, 이현정(2013); 황희정(2013), 댄스클럽기사를 통해 본 한국의 대중춤: 도전과 퇴폐의 경계선,『우리춤과 과학기술』23, pp.123-144; 한상호(2016), 한국댄스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디지털융복합연구』14(3), pp.45-54.

www.kci.go.kr

춤 움직임 특성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사교춤의 한국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춤의 형태와 향유문화에서 서양사교춤 본래의 특징과 문화와는 다른 양상들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특징은 본래의 형태나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생성과 유통 및 쇠퇴의 주기와 기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사교춤은 첫째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등 본래의 사교춤과는 다른 춤 종목을 출현시켰다. 이들 세 춤 종목은 서양 사교춤에서 유래하고 있으나 춤의 구성과 동작 등에서 본래의 춤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둘째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등 세 춤 종목은 각기 그 스텝과 동작 구성의 변형과 차이에 따라 분화하고, 이들 종목에서 새로운 변이형이 파생되고 있다. 현재는 이들에서 분화한 다수의 춤 종목들이 기존의 종목들과 함께 향유현장에 공존하며, 각기 출현과 유행, 쇠퇴의 주기를 가진 것으로 관찰된다. 셋째 이들 춤 종목의 동작과 움직임에서 한국적인 움직임의 특징이 관찰된다. 곧 전통춤사위와 한국인이 몸사위에 고유한 특징으로 여겨온 특징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 2. 한국사교춤의 종목과 특징

### 가. 지루박

한국사교춤 종목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춤인 지루박은 댄스스포츠 라틴종목의 하나인 자이브(jive)와 가깝다. 자이브는 미국에서 1930-1940년대 크게 유행했던 지터버그(jitterbug)가 유럽으로 건너가 개량되어 댄스스포츠 라틴종목의 하나가 된 춤이다. 국내에서 지루박은 지터버그에서 파생 및 변형된 것으로 흔히 소개 및 수용되고 있다. 지터버그는 음악과 공연자 특성에 따라 제약 없는 변형이 가능했던 춤으로 그 한국적 변이형이 지루박이라는 것이다. 한국사교춤 중 지루박으로 분류되는 춤의 범주에는 초기 스텝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들이 존재한다. 국내 한국사교춤의 향유현장에서 지루박으로 유통되는 춤으로는 2/4/6, 짤짤이, 잔발, 통합발, 삼각스텝, 리듬짝, 난스텝, 난짝, 하바 등 다수의 변형 형태들이 있다.

지루박의 기본스텝은 보통 정6박 일자스텝이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10] 지터버그가 3박자의 춤인데 반해 지루박은 6박자 춤이다. 자이브가 정확한 스텝과 속도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 지루박은 스텝과 상체 및 팔의 표현이 연결되며 이뤄지는 상태를 일컫는 피겨[11]의 비중이 큰 것이 그 특징이다. 사교춤 지도자나 향유자 집단에 따라 스텝의 정확성을 주장하기도 하나 대체로는 스텝의 정확성보다는 박자를 타는 피겨를 강조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 나. 부르스

블루스(blues)는 블루스 음악에 맞춰 추는 춤으로, 슬로리듬댄스(slow rhythm dance)로 불리기도 하는 대중적인 춤이다. 1913년 미국의 핸디(W. C. Handy)에 의해 처음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며, 그 기

10) 구자성(2016), 『마돈나-나의 인생, 나의 춤 이야기』(서울: 렛츠북), p.22; "사교댄스(지루박/지루박)의 이해와 무도학원 이야기", 〈https://blog.naver.com/mylive5000/221394526171 2018. 11. 20.〉.

11) 한국사교춤의 현장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연속적인 스텝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춤추는 몸의 모양새나 형태를 지칭하는 의미로 유통된다. 지루박의 경우 하나의 피겨가 6스텝으로 이뤄지므로 6박의 춤으로 통용된다.
삶의 활력 사교교실, "지루박의 개요와 역사", 〈http://blog.daum.net/shinhs-51/11822929, 2019. 12. 10.〉.

원에 대해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슬픈 음악에 맞춘 느린 춤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고 있다.[12] 미국에서 시작된 블루스는 스텝이 단순하고 느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추어지는 춤 중의 하나이다. 블루스는 1950년대 미국의 상업적인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사회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후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춤동작과 향유맥락에서의 변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교춤의 한 종목인 부르스는, 표준화된 댄스스포츠의 모던 종목 중 하나인 왈츠[13]와의 유사성이 관찰된다. 춤을 추는 동안의 자세와 동작, 특히 상체를 꼿꼿이 세운 자세를 내내 유지해야 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자세로 인해 한국사교춤 중에서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춤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르스는 한국사교춤의 세 종목 중 상대적으로 댄스홀을 넓게 쓰는 편으로, 수평적 이동과 90°, 180° 회전으로 방향을 바꿔 춤동작을 이어나간다. 상체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수평이동으로 스텝을 밟는다. 또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몸을 탄력적으로 흔드는데 이는 높낮이가 가미된 움직임이 많아 이런 특징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루박과 트로트가 대체로 스텝이 쉽고, 리듬과 박자가 단순하다면, 부르스는 상대적으로 춤동작이 화려하고 복잡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르스의 동작에 탱고와 슬로폭스 등 댄스스포츠의 동작들이 가미되어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르스는 정착 초기 이래로 파트너와의 포지션이 밀착된 홀드[14]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거리가 생긴 여유로운 홀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형이 관찰된다.[15]

### 다. 트로트

한국사교춤 종목의 하나인 트로트(trot)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폭스트롯[16]은 댄스홀을 가로지르며 길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듯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춤은 부드럽고, 점진적인 춤으로 알려진다. 본래 노래가 있는 큰 밴드 음악에 맞춰 추어졌던 이 춤은 3박 대신 4박 음악에 맞춰 추는데 왈츠와 비슷하게 보인다. 1910년대에 발전되었으며 1930년대에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현재는 댄스스포츠 모던종목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사교춤 종목인 트로트는 지루박 보다는 느리고 부르스 보다는 빠른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다. 스텝은 부르스와 비슷하고 단순하다. 모던 5종의 하나인 폭스트롯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일본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트로트로 불려졌다. 동작과 자세는 부르스와 비슷하며, 음악은 빠른 편으로 한국의 향유자에 맞춰진 트로트이다. 부르스의 변형으로 홀드가 라틴댄스처럼 풀린 자세가 자주 나오는 사교춤이다. 블루스와 탱고를 섞어놓은 것 같다는 평이 있다. 부르스와 트로트 등 한국사교

12) Wikipedia, *Blues Dance*, 〈https://en.wikipedia.org/wiki/Blues_dance, 2019. 1. 20.〉.

13) *Waltz Steps*, 〈https://www.centralhome.com/ballroomcountry/waltz_steps-1.htm, 2018. 11. 20.〉.

14) 사교춤의 향유현장에서 유통되는 용어로 춤추는 동안 파트너와 짝을 지은 상태를 의미한다. 파트너와의 거리가 밀착된 상태를 클로즈드홀드(closed hold)로 칭한다.

15) 실버iTV, 스타Show 리듬댄스, "사교댄스 부르스", 〈https://www.youtube.com/watch?v=YBWV33cIcbc, 2018. 5. 30.〉.

16) 초기의 우아함과 스타일을 처음으로 차용했던 베르논과 아이렌 캐슬(Vernon and Irene Castle) 부부에게 눈에 띄어 1914년 처음으로 추어졌다. 춤의 이름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지만 보드빌 배우로 큰 인기를 누렸던 해리 폭스(Harry Fox)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다. 베르논 캐슬과 무용교사였던 베티 리(Betty Lee) 두 사람은 폭스트롯 기원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무용수들에게 있다고 그 공을 돌린다. 캐슬은 이 춤이 15년 동안 유색인 클럽에서 흑인들에 의해 추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루스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W.C. 핸디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멤피스 블루스(Memphis Blues)'가 폭스트롯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한다.
Wikipedia, *Foxtrot*, 〈https://en.wikipedia.org/wiki/Foxtrot, 2018. 8. 20.〉.

www.kci.go.kr

춤의 동작에 대해 왈츠 동작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음악과 표현방식에서의 차이가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두 춤 종목 사이에 스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유현장에서 춤의 숙련도가 높아진 향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차이보다 유사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 3. 라반의 에포트-셰이프 분석

라반동작분석은 루돌프 폰 라반(Rudolf von Laban, 1879-1958)의 움직임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움직임 분석체계이다. 라반은 "움직임의 구조와 특질이 몸을 통해 어떠한 방식과 모양으로 공간상에서 표현"[17]되는지를 찾고자 했으며, 인간의 의지와 심리 등과 움직임 형태 및 특질의 관계를 분석하는 동작분석이론으로 제시했다. 이는 20세기 후반 라반의 제자들에 의해 몸(body)과 에포트(effort), 셰이프(shape), 공간(space), 곧 BESS의 네 범주로 움직임을 분석하는 체계로 발전되었다. 라반동작분석은 움직임 특질을 분석하고 인간의 무의식적, 의식적 움직임에서 심리상태와 의도를 읽어내는데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춤과 움직임이 이뤄지는 춤의 현장과 일상에서 폭넓게 움직임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용분야에서는 무용 교육과 훈련 및 학습에서,[18] 새로운 움직임 개발과 창작, 춤의 보존에서, 안무 스타일 연구와 무용사의 미적 체계 연구에서, 움직임 치료나 무용치료[19] 등에서 활용된다. 또한 무용만이 아니라 일상의 활동이나 의례 및 의식, 노동 등 사회문화적 행위 속 인간의 움직임을 대상으로도 활용된다.

움직임분석의 네 범주인 BESS에서 몸(body)은 몸의 어떤 부위를 움직이는가, 에포트(effort)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셰이프(shape)는 어떻게 환경과 관계되는가, 공간(space)은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관찰한다.[20] 동작분석은 이들의 관계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움직임 요소는 각기 다른 세 요소들과 균형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임의 의미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들 네 요소 중 하나를 분석하더라도 그 요소와 연결된 다른 세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네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춤의 움직임이나 서양 궁정춤의 움직임을 분석한 다수 선행연구들이 있다. 한국전통춤의 움직임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 이매방류 승무[21]나 처용무,[22] 강선영류 태평무[23] 최승희의 기본춤과 박금술의 기본춤의 움직임[24]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궁정왈츠와 현대무

17) 신상미, 김재리(2010), 『몸과 움직임 읽기-라반 움직임 분석의 이론과 실제』(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5.

18) 윤지은(2018)은 한국과 미국의 무용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라반움직임 이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움직임특질 분석 능력은 춤 움직임의 이해를 높여 동작실행은 물론 안무와 창작, 춤 논의의 이론적 확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윤지은(2018), 대학무용교육에서 라반움직임이론 교육의 필요성-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71(4), pp.83-104.

19) 이경희(2016)은 무용동작치료를 위한 평가도구로 라반동작분석법의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경희(2016), 무용동작치료에서의 움직임 평가의 의미-라반동작분석법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60(3), p.125.

20) body는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몸이며, effort는 움직임의 동기나 마음가짐이고, shape는 움직임의 형태, space는 조화로운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앞의 글, p.37.

21) 강성범(2004), LMA를 통한 한국 전통무용의 움직임 특성 분석-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이매방류 승무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6, pp.1-28.

22) 김재리(2004), LMA를 통한 처용무의 움직임 분석, 『한국무용기록학회지』 7, pp.1-33.

23) 강성범, 김현주(2007), LMA분석을 통한 강선영류 태평무의 움직임 분석,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2, pp.1-20.

24) 유화정, 전하윤(2018), Effort-shape 이론을 통한 남·북 기본춤의 움직임 비교 분석: ≪박금슬 기본춤≫과 ≪최승희 기본춤≫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pp.237-254.

용의 움직임을 분석한 연구[25]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동작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한국전통춤의 움직임 특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는 레퍼토리화한 춤, 곧 작품으로 고정된 춤의 움직임 특질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작품으로 고정된 춤이 아니라 동시대 대중문화 현장에 살아있는 춤현상과 그 움직임 특질의 지속적인 변화 경향을 추적한다.

이에 라반동작분석법의 다른 이름이자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에포트-셰이프 이론[26]을 한국사교춤의 움직임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에포트-셰이프의 분석에서 에포트는 움직임의 네 특질인 '힘 또는 무게(weight)'와 '시간(time)', '공간(space)', '흐름(flow)'의 역동적 에너지를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한다. 셰이프는 공간에서 신체의 변화하는 형태들을 셰이프 흐름(shape flow), 방향지향적 셰이프(directional shape), 셰이핑(shaping)으로 관찰하여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신체의 형태변화와 그 의미를 관찰한다.[27] 에포트-셰이프 이론은 인간의 내적 충동이 신체를 통해 공간 안에서 움직임의 형태를 갖추는 데에 주목하는데, 움직임의 특성은 특정문화, 특정민족,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로 확장하게 된다.[28] 에포트-셰이프이론은 에포트와 셰이프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질적 측면을 분석한다. 곧 인간의 움직임은 내적 충동인 에포트로 발현되고, 이는 움직임의 외적 형태인 셰이프로 나타나는데 이들 에포트와 셰이프를 분석하면 문화적으로 관습화된 일상 움직임의 특징과 예술적 움직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춤동작에서 문화적으로 관습화된 움직임의 특성을 추적하게 한다는 점에서 에포트-셰이프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한국사교춤의 움직임 특질을 라반의 동작분석, 특히 에포트-셰이프의 분석을 중심으로 관찰했다 .

다음 장에서는 우선 한국사교춤의 동작묘사 방식을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사교춤동작의 주요 특성을 수집, 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춤 시연영상에서 한국화 특성을 보여주는 주요 동작의 에포트-셰이프를 분석할 것이다.

## III. 한국사교춤 동작의 한국화 특징

### 1. 한국사교춤의 동작묘사에 나타난 한국화

한국사교춤과 댄스스포츠는 세계화된 사교춤의 다른 지역화 사례라는 관련성으로 인해 사교춤의 향유현장에서 함께 거론되거나 비교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중춤인 한국사교춤은 기교구사의 정확성이나 스텝의 복잡성보다는 향유 및 참여 자체가 향유의 목적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교춤의 연행 및 향유양상에 대한 향유현장의 인식과 표현방식을 수집, 정리하여 〈표 1〉을 작성했다.[29] 한국

25) 박수잔나(2011), 피나 바우쉬 〈Waltzer〉 중 왈츠 움직임의 특성 연구-궁중무용 왈츠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2, pp.43-58.

26) 인간의 움직임 스타일과 형태, 움직임의 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신상미, 김재리(2010), p.40.

27) 앞의 책, p.122.

28) 앞의 책, p.23.

29) 구자성의 책과 사즐모와 아사모 등 사교춤동호회의 홈페이지, 인터넷 블로그에 축적된 텍스트를 수집, 정리하여 작성했다. 구자성(2016); 사즐모 다음카페, 〈http://cafe.daum.net/leeju9009, 2018. 12. 20.〉; 아사모생활댄스연합회, 〈http://cafe.daum.net/kooja1950, 2018. 12. 10.〉; 삶의 활력 사교교실, "지루박의 개요와 역사", 〈http://blog.daum.net/shinhs-51/11822929, 2019. 12. 10.〉.

www.kci.go.kr

사교춤 동호회의 인터넷 카페 자료실과 회원토론방, 유튜브의 사교춤 영상의 해설 녹취문 등에서 수집한 관련 텍스트를 검토하여 정리했다.

〈표 1〉에서 한국사교춤의 동작 묘사방식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사교춤은 보여주는 춤이 아닌 친목도모와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춤으로서 스텝의 정확성보다는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여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춤동작에 대한 묘사 텍스트에 의하면 한국사교춤은 참여와 즐기기 위한 춤이므로 보기에 아름답거나 화려한 춤과는 거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루박 등 한국사교춤에 관찰되는 춤동작의 변형, 특히 스텝이 느려지고, 연행자가 자의적으로 박자에 맞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특성이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특성의 출현 동기로 1970년대 카바레나 무도장에서 민요가 춤 반주로 연주된 사실과 연결하는 관찰이 있다.[30] 곧 전통민요 반주음악에 맞춘 한국사교춤의 연행은 한국적인 춤동작이나 한국인의 몸사위가 사교춤동작에 섞여들 수 있는 주요한 맥락이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사교춤의 춤동작에서 한국적인 움직임의 특징을 전통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찾게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표 1〉 한국사교춤 향유문화 및 동작묘사

| 구 분 | 한국사교춤 |
|---|---|
| 동작 특성 | – 스텝보다는 리듬(박자) 타는 여유와 부드러움<br>(일자지루박, 리듬짝, 잔발 등이 리듬댄스로 분류)<br>– 스텝을 줄이고 무릎으로 리듬을 타는 동작은 이동 없이 몸체가 흔들리는 정도로만 보임(리듬댄스, 비석춤)<br>– 무릎 굽히기 동작이 자주 나타남(부르스, 중박) |
| 한국사교춤에 대한 태도 | – 오래 향유한 사람의 춤에 보이는 내공 존재에 대한 언급<br>– 이것을 잘 추는 춤이자 춤의 중요한 매력으로 주장<br>– 일반인이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춤으로 대중적 보급에 유리 |
| 향유 목적 | – 참여하는 춤<br>– 보기에는 매력 없고 지루하나 고령화 사회의 노인신체에 적합한 움직임<br>(리듬댄스, 웰빙댄스 등으로 명명)<br>– 교육 체계화, 자격증제도 마련 노력 관찰됨 |

구자성[31]의 글은 한국사교춤의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한국사교춤은 참여자가 음악과 리듬을 즐기는 춤이라는 점에서 보여주는 춤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사교춤을 다룬 문헌자료가 제한된 가운데 그의 글은 본 연구에 유용한 관점과 정보를 제공했다.

> 댄스스포츠는 리듬을 타는 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악에 맞춰 발을 떼는 동작뿐이지, 몸 속 깊이 사교댄스와 같은 별도의 리듬이 없다는 점입니다.[32]

30) 구자성(2016), p.194.

31) 구자성의 책에서 그는 1980년대부터 서울에서 무도학원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다음과 네이버 포털에서 "한국사교댄스지도자협회"와 "아사모생활댄스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교댄스지도자 자격증 검정과 연수교육을 운영하는 등 한국사교춤의 현장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해온 인물이다.
앞의 책; 아사모생활댄스연합회, 〈http://cafe.daum.net/kooja1950, 2018. 12. 10.〉.

32) 구자성(2016), pp.21-22.

www.kci.go.kr

스텝이 없이도 리듬만으로 상대와 교감하며 깊은 맛을 느끼는 춤.[33]

세월이 흘러 몸에 리듬이 나오고 음악을 타기 시작하면 스텝이 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아지지요. 결국 스텝은 발과 몸을 음악에 익히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스텝이 없이도 리듬만으로도 즐거운 춤을 추며 춤의 깊이를 느끼니까요.[34]

위의 인용을 통해 한국사교춤은 한국사회의 향유층의 정서에 맞게 변형된 춤으로 기교와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으며, 스텝이 단순화된 춤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사교춤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구자성의 글만이 아니라 본 연구를 위해 수집 및 검토했던 다수 온라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춤동호회 회원 자료방 등에 올라온 사교춤에 대한 의견이나 유튜브 동영상에 첨부된 해설 녹취문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35]

## 2. 한국사교춤 동작의 한국화 특징

본 연구에서 사교춤의 한국화를 진단하는 근거는, 서양사교춤 종목 일반과 다른 한국에서만 연행되는 춤 종목의 출현했다는 점, 이들 춤 종목이 지속적으로 분화, 진화하며 새로운 춤 종목으로 생성, 유통, 소멸하는 등 독자적인 생명성이 관찰된다는 점, 그리고 이들 춤 종목의 움직임에서 한국 전통춤사위나 한국인의 몸사위에 고유한 특성으로 파악되는 움직임 특성을 관찰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첫째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등 한국에만 있는 춤 종목이 향유되고 있다. 이들 세 춤 종목은 서양의 사교춤에서 유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만 연행되는 춤이다. 지루박과 부르스는 미국 대중문화에서, 곧 지터버그와 팝음악인 블루스에서 유래했으며, 트로트는 이들 두 춤의 요소가 섞인 것이다. 이들 춤은 각기 원래의 형태에 해당하는 지터버그 또는 자이브, 왈츠의 동작 특성을 보이지만 한국에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춤전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변형의 주요 특성은, 다른 종목의 춤동작과 결합해 하나의 춤 종목이 동작에서는 복합적 특성이 주목된다. 일례로 한국사교춤 종목으로서 부르스는 모던 종목인 왈츠 동작과 자세를 기본으로 하지만 라틴 종목의 춤동작이 많이 섞여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파트너와의 춤 자세인 홀드의 경우 서양사교춤의 왈츠가, 상체는 젖히고 하체는 붙이는 '닫힌' 홀드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한국사교춤 부르스의 홀드는 파트너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열린' 홀드 형태를 취하게 되는 등이다. 왈츠의 홀드에서 관찰되는 강하고, 통제되는 에포트에 비해 부르스의 홀드에서는 가볍고, 자유로운 에포트를 관찰할 수 있다. 홀드의 차이는 춤이 진행되는 동안 연행자의 자세에 영향을 주는데 '자유로운 흐름'과 '가벼운 무게' 등으로 이는 한국사교춤 동작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사교춤의 대표적 종목으로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가 있고, 이들 종목은 다시 그 스텝과 동작 구성의 차이를 만들어 새로운 종목으로 분화한다. 세 종목에서 분화한 다수의 춤 종목들이 향유현장에 공존하는데 각 춤이 사용하는 음악과 리듬, 동작구성 등은 향유지역이나 단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33) 앞의 책, p.66.
34) 앞의 책, p.76.
35) 인터넷 블로그와 사즐모 다음카페 혁차니(ID), 민들레(ID) 등의 글과 그리고 본 연구자가 수집 및 녹취한 유튜브의 한국사교춤 시연영상의 해설 녹취문에서 이를 확인했다.
"사교댄스(지루박/지루바)의 이해와 무도학원 이야기", 〈https://blog.naver.com/mylive5000/221394526171, 2018. 11. 20.〉; 사즐모 다음카페 〈http://cafe.daum.net/leeju9009, 2018. 12. 20.〉.

춤의 형태 변형에서도 일자지루박은 춤의 진행방향이 일자로 이동하는 등 공간을 좁게 쓰는 춤의 특징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국내 무도장 또는 클럽 댄스홀의 좁은 공간에 많은 커플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로방향에 방해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출현된 특징으로 설명된다. 분방한 진로방향을 가진 춤인 지터버그가 한국의 무도장 여건에 맞춰 연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변형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작구성이나 스타일이 다른 춤들이 출현하고, 이들은 각기 하나의 춤 종목으로 생성, 유통, 쇠퇴하는 독립적인 생명력을 보인다. 일례로 일자지루박, 2/4/6, 짝난, 난스텝 등 지루박의 다양한 변이형이 공존하는데 이들은 향유지역[36]이나 집단에 따라 수용양태에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셋째 한국사교춤 종목의 움직임에서 한국 전통춤사위나 한국인의 몸사위에 고유한 특성으로 파악되는 움직임 특성을 관찰하게 된다. 춤의 속도가 느려지고, 동작공간의 범위가 줄어드는 등 단순화하는 경향과 함께 한국사교춤의 음악으로 한국의 대중가요나 민요의 변형곡 등이 자주 사용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스텝의 정확한 실행보다는 음악의 리듬을 타거나 엇박에 맞춰 일부 스텝을 생략하는 식으로 연행방식도 주요한 특징으로 관찰된다. 이에 한국사교춤의 움직임에서 관찰되는 '수그러진 몸체와 무릎 굴신'과 '움직임 없이 춤에 몰입하기', '엇박' 등 움직임 특징을 '장단을 먹고 서기'와 '얼르는 동작', '엇박춤' 등한국전통춤의 표현형식과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 IV. 한국사교춤 동작의 에포트-셰이프

한국사교춤의 움직임 특질의 분석을 위해 실버iTV의 영상을 선택했다. 이들 영상은 사교춤계 전문가의 승인을 얻은 다수 연행자들의 시연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변이형을 아우름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대표성을 제한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실버iTV에 소개된 사교춤 시연영상 자료는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는 물론 이들에서 변형된 종목들인 리듬댄스, 2/4/6, 중박 블루스 등의 영상도 포함하며, 각기 약 3-4분 분량이다. 이들 영상은 개별 춤 종목의 동작 구성 및 움직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행자에 따른 연행 양식의 차이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영상을 분석을 위한 중심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방영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네이버TV와 유튜브를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영상자료라는 점, 둘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방송채널의 콘텐츠로 방송을 위해 일차적인 검증 절차가 선행된 자료라는 점, 셋째 해당 영상의 대표성과는 별개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영상자료의 시연종목과 구성방식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의 제한이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넷째 시연영상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해설을 춤구성과 동작 특질의 이해를 위한 녹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국사교춤 주요동작의 에포트-셰이프 분석을 위해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와 이들의 변이형인 리듬댄스의 여러 종목의 시연영상들을 시청했다. 한국사교춤에서 한국화 특징을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세 개

36) '잔발을 추는 무도장(콜라텍)'이나 '리듬짝을 추는 무도장' 등에 대한 경험담이나 정보가 사교춤동호회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회원 게시판에서 공유되고 있다. 또한 '2/4/6에서 짝난 또는 리듬짝으로 넘어갔다'는 식의 경험담도 한국사교춤의 변이형의 출현과 성행에 지역별, 향유공간별 시차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개인블로그 사랑모에 축적된 무도장 방문기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랑모 사교댄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Xs2F, 2019. 11. 30.〉.

www.kci.go.kr

의 움직임에 주목했으며, 이들 세 움직임의 에포트-셰이프를 관찰했다. 첫째는 수그러진 자세와 굽힌 무릎의 움직임에 나타난 에포트-셰이프이다. 춤을 시작하기 직전의 홀드 상태와 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어지는 움직임이다. 둘째는 춤이 진행되는 동안 움직임 없이 춤에 몰입하여 서있는 실행의 에포트-셰이프이다. 연행자는 움직임과 이동을 정지하고 서있는 것 같지만 제자리에서 리듬을 타면서 스텝을 흘려보낸다. 마치 한국전통춤의 연행과정에서 장단을 먹고 서 있는 것과 유사하다. 셋째는 춤동작이 엇박으로 시작되는 순간으로, 엇박이 즉흥적인 움직임의 변형으로 이어지는 순간의 에포트-셰이프이다. 이는 부루스의 변형종목의 하나인 중박 부루스의 특징으로 흔히 소개되는데 민요음악을 사용하는 연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1. 수그러진 자세와 굽힌 무릎

한국사교춤의 강습이나 교본은 춤의 기본자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피는 것을 강조한다. 대부분 시연영상의 경우도 신장된 자세를 취하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일부 시연영상과 향유현장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한국사교춤의 연행자세는 신체가 전체적으로 수그러진 형태를 띤다.[37] 어깨가 수그러진 구부정한 자세는 이와 대조적으로 무릎에서 시작되는 잦은 바운스로 인해 몸 전체가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인상을 준다. 이는 향유현장에서 리듬댄스의 일종인 '잔발춤' 등의 시작자세나 연행 중의 자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남녀 연행자가 마주보고 손을 잡고 서거나 연행 중 수평 이동과 회전 동작 상황에서 연행자의 자세에 나타난다.

몸체는 수그러진 자세가 유지되는 반면 무릎은 위 아래로 반동을 지속함에 따라 수그러진 몸통과 펴진 무릎, 수그러진 몸통과 굽혀진 무릎이 교차된다. 몸체는 수그러진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무릎은 신장과 수축의 상반된 움직임의 교차를 반복하는데 수그러진 몸통과 신장된 무릎이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 몸체와 무릎 움직임의 에포트와 셰이프는 엇갈린 특질을 나타낸다. 이때 수그러진 자세와 무릎 굴신은, 몸체와 무릎 움직임 특질이 상응과 상응하지 않음의 순간을 교차, 반복함으로써 몸의 흔들림이 지속된다. 몸체와 무릎굴신 움직임 특질의 엇갈림은 한국전통춤의 동작이나 한국인의 몸사위에서 유사하게 관찰되기도 한다. 전통춤 연행자가 흉곽이 조이는 전통춤의 기본자세인 수그림을 유지한 상태로 무릎을

〈표 2〉 수그러진 자세와 굽힌 무릎의 에포트-셰이프

<table>
<tr><th colspan="6">수그러진 자세와 굽힌 무릎</th></tr>
<tr><th colspan="3">몸체</th><th colspan="3">무릎</th></tr>
<tr><th>에포트 인자</th><th>에포트 동작</th><th>셰이프 흐름</th><th>에포트 인자</th><th>에포트 동작</th><th>셰이프 흐름</th></tr>
<tr><td>무게_무거운</td><td rowspan="4">비틀기<br>(wiring)</td><td rowspan="4">줄어드는,<br>우묵해지는<br>(shrinking,<br>hollowing)</td><td>무게_가벼운</td><td rowspan="4">튕기기<br>(flick)</td><td rowspan="4">줄어들기//<br>늘어나기<br>셰이프 흐름의<br>교차 반복<br>(shrinking,<br>growing)</td></tr>
<tr><td>시간_느려지는</td><td>시간_빨라지는</td></tr>
<tr><td>공간_간접적인</td><td>공간_간접적인</td></tr>
<tr><td>흐름_통제되는</td><td>흐름_자유로운</td></tr>
</table>

37) 리듬댄스 영상에서 이러한 자세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실버iTV, 스타Show 리듬댄스, "246 리듬짝, 지루박", 〈https://www.youtube.com/watch?v=TcPA3bP5cGM, 2018. 10. 21.〉.

www.kci.go.kr

폄으로써 춤사위의 한 단락 또는 호흡을 마무리한다거나 탈놀이 연행자들이 신장된 몸체보다는 수그러진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굴신하는 걸음으로 연행을 할 때 등이다.

한편 한국사교춤에서 남녀 연행자들은 마주보는 상태로 양손을 잡거나 한 손을 잡아 회전과 이동을 한다. 연행자 사이의 연결은 이완되고 느슨한 상태로 보이나 두 연행자의 신체는 무게감과 함께 통제되는 흐름이 관찰된다. 이러한 몸의 상태는 확장되어 펴지고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드는 형태를 만든다. 이로 인해 신체가 전반적으로 수그러져 보인다. 한편 몸은 무릎의 반동으로 몸 전체가 흔들리고, 춤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수그러진 몸체와는 대조적으로 무릎은 탄력적인 굴신을 지속한다. 이때 무릎은 완전히 펴지기 보다는 몸통의 자세처럼 부분적으로 구부려진 상태로 흔들리면서 굽혔다 펴는 상태를 유지한다. 몸체가 '줄어드는'과 '우묵해지는' 셰이프 흐름을 유지한다면, 무릎은 상하로 '줄어드는'과 '늘어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교차, 반복되는 셰이프 흐름을 유지한다.

## 2. 움직임 없이 춤에 몰입하기

한국사교춤은 동작의 속도와 스텝의 복잡성이 향유자에 의해 연행과정에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스텝을 정확히 구사하지 않고, 박자와 리듬을 타는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동작과 스텝이 단순한 형태로 축약된다. 특히 노년층 향유자들은 음악과 리듬을 즐기며 연행하지만 춤 종목의 안무된 동작과 스텝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사교춤 종목의 일부 변이형은, 연행 중인데도 연행자들이 거의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자리에 서서 서성이는 듯한 춤의 이미지로 인해 '비석춤'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38] 비석춤은 많은 스텝이 생략되고 축약되어 단순한 동작의 춤으로 보이지만 춤의 순서와 흐름을 완전히 습득해야만 출 수 있는 춤이다.

공간 이동이 거의 없으며 작은 움직임만으로 춤에 몰입하는 현상은 한국사교춤 동작의 한국화 특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춤을 추는 동안 춤의 스텝이 많지 않고 느리며, 선명한 움직임이나 공간이동이 없다. 연행자는 밖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이 없이 서서 스텝의 박자를 늘려가면서 춤의 흐름을 즐기는 방식으로 향유한다. 이는 흔히 한국 전통춤에서의 '장단을 먹으며 서있는 동작', 또는 '어르는 동작'의 특성과 유사성을 대비하게 된다. 민속학자 정병호는 전통춤의 표현형식에 대해 '호흡작용에 의해 맺고, 얼렀다 풂, 장단과 장단 사이에서 움직임의 조절, 정중동의 움직임과 선을 제시한다.[39] 이중 정중동과 관련하여 "겉으로는 동작이 거의 없는 듯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은 바로 수많은 움직임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집중하여 완결시킨 경지"[40]로 묘사한다. 전통춤의 해석에 흔히 인용되는 정중동 미학이 한국사교춤 동작에서도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행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춤 종목 사례로는 '난스텝'이 있다. 난스텝은 'non-step', 곧 스텝이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41] 음악의 박을 2배 또는 3배로 시간을 늘려서 춤으로써 느린

38) 비석춤은 콜라텍 등 사교춤 향유현장에서 향유자들이 집단으로 연행할 경우 움직임이 분명하지 않아 무리가 이동 없이 서성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소개 영상에서 느린 춤사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난쿵난 일명 비석춤", 〈https://www.youtube.com/watch?v=VS_b85e1wSg, 2019. 11. 12.〉.

39) 정병호(2002), 『한국의 전통춤』(서울: 집문당), pp.301-304.

40) 앞의 책, p.303.

41) 난스텝은 6박자의 지루박을 12박, 18박 등으로 박을 늘려서 춤으로써 '슬로우(slow) 지루박'이라 할 수 있다. 늘려진 박자 동안 리듬을 타는 리듬댄스의 일종으로, 제자리에서 스텝을 밟게 되어 난스텝으로 불리게 되었다.

춤으로 연행되는데 스텝 사이의 박자가 늘려진 동안 음악 또는 리듬을 즐기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연행자의 스텝은 느려지고, 마치 제 자리에 서서 춤을 추는, 곧 '동작을 먹거나' '어르는' 듯 보인다. 연행자는 2배박 또는 3배박 등 스스로의 리듬에 맞춰 하나의 스텝에서 이어지는 다음 스텝으로 연행해 나간다. 스텝과 스텝 사이 연행자의 몸은 겉으로는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멈춰선 것이 아니라 춤을 계속 추고 있는 상태이다. 연행자들은 스텝을 드러나게 밟지는 않지만 음악에 맞춰 춤의 호흡과 강약, 박자를 단절 없이 연행하고 있다. 동시에 상대 연행자와 춤의 호흡을 주고받기를 즐긴다.

동작을 연행하는 순간과 마찬가지로 몸 전체에서 통제된 흐름 에포트가 작동하며, 무겁고 느려지는 직접적인 공간의 에포트를 관찰하게 된다. 연행자는 춤동작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연행하기 때문에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몸 전체에서 통제된 움직임 특징이 나타난다. 이들 에포트 요소가 모여 연행자의 에포트 동작은 '누르기(press)'의 특질을 보인다.

〈표 3〉 움직임 없이 춤에 몰입하기의 에포트-셰이프

| 움직임 없이 춤에 몰입하기 | | |
|---|---|---|
| 에포트 인자 | 에포트 동작 | 셰이프 흐름 |
| 무게_무거운 | 누르기<br>(press) | 자라는, 펼치는, //줄어드는,<br>좁아지는 흐름 교차<br>(growing, unfolding//<br>shrinking, narrowing) |
| 시간_느려지는 | | |
| 공간_직접적인 | | |
| 흐름_통제되는 | | |

한편 움직임 없이 춤에 몰입하는 실행에서는 두드러진 동작과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연행자와의 교감과 호흡의 교류가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셰이프 흐름이 나타난다. 이 경우 동작과 이동은 없지만 연행자는 상대와 함께 음악의 박을 늘려 느려진 춤을 연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호작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동작과 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향지향적 셰이프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상대 연행자와 박자와 춤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호흡과 정서를 주고받는 관계 맺기, 곧 몸 밖의 몸을 의식하고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으로 소통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셰이프는 몸의 외부를 향해 '자라는'과 '늘어나는' 셰이프와 '줄어드는'과 '좁아지는' 셰이프 흐름이 지속적으로 교차된다.

### 3. 엇박

부르스에서 한국춤동작의 특징을 찾는다면 엇박의 춤이라는 점이다. 댄스스포츠 등 서양사교춤 종목들은 안무된 대로 정박에 정확한 스텝을 구사하는 것이 좋은 퍼포먼스라는 점에서 정박의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사교춤에는 정박이 아닌 중박 또는 엇박으로 추는 춤 종목들이 있다. 부르스 중박과 같은 중박춤은 춤동작의 박자를 중박 또는 엇박으로 실행한다.[42] 중박은 음악의 박자에 맞춰 스텝을 밟는 것이 아니라 박과 박 사이 중간에 스텝을 밟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악의 박자보다

42) 부르스의 중박과 엇박의 특성 참고.
구자성(2016), p.183, p.187; 실버iTV, 스타Show 리듬댄스, "246 리듬짝, 지루박", 〈https://www.youtube.com/watch?v=TcPA3bP5cGM, 2018. 10. 21.〉.

www.kci.go.kr

반 박자 늦게, 곧 중박에 시작하고, 정해진 박에 스텝을 밟거나 마치지 않고 박과 박 사이에 스텝을 밟는 것이 특징이다.

정병호는 전통춤의 표현형식에 대한 설명에서 "장단과 장단 사이에서 좀 빠르게 아주 빠르게, 좀 느리게 아주 느리게 등으로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현상을 변화시킨다"고 관찰하면서 움직임에서의 시간적 변화가 연행자에 의해 이뤄지는 전통춤의 특징을 언급한다.[43] 또한 한국전통춤 기본사위의 특징으로 '3박자 엇박춤'[44]이 언급되며, 밀양백중놀이의 북춤이나 통영 무속굿춤, 오광대의 양반춤 등의 특징의 하나로 엇박춤이 언급된 바 있다.[45] 구자성에 의하면 부르스 중박은 과거 카바레에서 전통민요를 음악으로 사용할 때 출현했다.[46] 전통민요반주에 맞춘 사교춤의 연행 과정에서 사교춤동작과 한국적인 움직임의 특성이 섞이게 되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흔히 정박에 이뤄지지 않는 박을 엇박이라 부르고 있어 중박춤은 엇박춤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박을 엇갈리는 중박 사교춤동작에서 전통춤사위의 특징과 유사성을 확인하게 된다.

〈표 4〉 엇박의 에포트-셰이프

| 엇박 | | |
|---|---|---|
| 에포트 인자 | 에포트 동작 | 방향지향적 셰이프 |
| 무게_가벼운 | 튕기기(flick) | 수평적 방향지향_<br>옆으로 교차하는<br>(sideway cross) |
| 속도_빨라지는 | | |
| 공간_간접적인 | | |
| 흐름_자유로운 | | |

한국사교춤에서 '쿵'과 '짝'은 정박에 붙여진 이름이며, 다수의 춤 종목은 이들 정박에 맞춰 스텝과 동작을 수행한다. 그러나 중박부르스와 같은 경우는 '쿵'과 '짝'의 정박 사이에 스텝과 동작을 맞추며 춤을 연행한다. 부르스의 중박과 2/4/6 중박, 리듬짝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연행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밖에도 부분적으로 중박 스텝과 정박 스텝이 섞여진 춤 종목도 있다.[47] 이들 엇박 춤 종목의 출현은 춤의 연행에서 연행자가 선호하는 속도나 멋스러움 등의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향유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논쟁은 경쟁적이지만 연행스타일의 차이로 수용되고 공존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사교춤에서 엇박춤의 특징으로 움직임의 변형이 가능해지는 즉흥성을 들 수 있다. 반 박자 늦은 스텝으로 시작하여 박과 박 사이의 중간에 스텝을 밟는 춤움직임의 특징은, 가볍고 빨라지는 에포트로 튕기기의 에포트 동작이 나타나며, 그 즉흥적 특징으로 인해 자유로운 흐름이 관찰된다. 중박부르스의 춤 진로는 사교춤 일반과 같이 수평적 방향지향 중 옆으로 교차하는(sideway cross) 셰이프가 나타난다.

43) 정병호(2002), p.302.

44) 정병호를 비롯한 전통춤 연구자 등은 '3박자 호흡춤과 엇박춤'이 전통춤 기본사위의 특징으로 언급한다. 정병호는 전통춤의 원형의 하나로 '3박자 엇박춤'을 소개한다. 정병호(2002), p.298.

45) "전통춤의 명인 6명이 펼치는 한국 춤의 진수", 〈http://parisjisung.com/bbs/board.php?bo_table=bo_57665&wr_id=9&page=5, 2019. 12. 20.〉.

46) 구자성(2016), p.194.

47) 춤의 연행에서 모든 스텝이 엇박, 곧 중박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중박과 정박이 함께 실행된다는 입장 등이 향유현장에 공존한다.
마카홍의 댄스사랑, 〈http://blog.daum.net/macaohong, 2019. 12. 20.〉.

www.kci.go.kr

#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사교춤의 한국화 특성을, 한국사교춤의 동작에 나타나는 움직임의 한국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사교춤은 서양사교춤이 한국사회에 수용되어온 지난 1백여 년의 지역화 과정에서 변형되어 오늘에 이른 춤이다. 서양의 사교춤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지역화 과정에서 본래의 춤과 다른 독특한 춤 구성과 동작을 갖추었으며, 한국사회에서만 향유되는 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교춤의 고유한 동작에서 움직임의 한국적 특성을 관찰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라반동작분석법을 활용하여 고유한 연행 동작의 세 장면을 포착해 에포트-셰이프를 분석했다.

한국사교춤의 한국화 특징으로, 먼저 지루박과 부르스, 트로트 등 세 개의 독특한 춤 종목의 출현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춤 종목은 한국에만 고유한 사교춤의 동작구성과 움직임의 특성을 보여준다. 서양사교춤 본래의 춤구성과 동작은, 지난 세기 문화세계화 과정에서 접촉해온 다양한 세계 춤문화와 동작, 그리고 한국 문화 내부의 전통적인 춤동작과 춤문화의 특성들과 수렴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에 없던 독특한 춤의 변형인 동시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춤의 변형을 이뤘다. 또한 한국사교춤은 지루박과 부루스, 트로트 등 세 춤 종목에서 파생되는 춤의 변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새로운 춤 종목을 출현시키고 있다. 이들 다양한 변이형들은 향유현장에서 향유자 집단에 의해 향유되며, 공존함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등 한국사교춤 세 종목에서 한국적인 움직임의 특징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장면에 주목했다. 한국적인 움직임의 특성으로 추출한 주요 세 장면은, 첫째 이완된 몸체의 형태로 '수그러진 자세'와 대조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무릎을 이용한 바운스', '움직임 없이 춤에 몰입하기', '엇박이 일으키는 즉흥성' 등이다. 이들 세 장면은 한국사교춤종목 다수에서 잦은 빈도로 나타나며, 서양 사교춤과는 다른 움직임 특징으로 관찰된다. 더욱이 이 동작들은 흔히 한국전통춤의 특징으로 떠올리는, '맺고 풀고 얼르는 움직임'이나 '박을 먹고 서있는 움직임' 등 정중동의 움직임과 시간적 변화를 주는 '엇박', 엇박이 촉발하는 즉흥성이 중첩되며, 한국적인 움직임의 특징과 연결되었다.

본 연구는 동시대 한국의 향유현장에서 연행되는 한국사교춤동작의 한국적인 움직임 특성을 관찰하고자 했다. 한국사교춤동작에서 한국적인 움직임 특성으로 주목한 세 장면을 중심으로 지역화된 춤동작과 그 특성, 곧 춤동작에 나타난 문화혼종적 특성을 라반동작분석법을 활용하여 관찰하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주목한 세 가지 한국적인 움직임 특징만으로는 한국사교춤동작의 한국화, 곧 한국사교춤에 스며있는 한국적인 움직임 구조와 질적 특성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반동작분석법의 에포트와 셰이프를 분석도구로 활용했으나, 세 가지 특징에 한정된 부분적 묘사에 그치는 제한된 성과만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차후의 과제로 한국사교춤동작의 움직임 특질을 종합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라반동작분석법의 보완된 적용법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살아있는 동시대 춤문화로서 생성과 유통 및 쇠퇴하는 한국사교춤을 기록 및 분석함으로써 춤동작과 움직임의 변형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나아가 사교춤 한국화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요인을 종합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www.kci.go.kr

## ■ 참고문헌


구자성(2016).『마돈나-나의 인생, 나의 춤 이야기』. 서울: 렛츠북.

신상미, 김재리(2010).『몸과 움직임 읽기: 라반 움직임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신상미(2007).『몸짓과 문화: 춤 이야기』. 서울: 대한미디어.

정병호(2002).『한국의 전통춤』. 서울: 집문당.

강성범(2004). LMA를 통한 한국 전통무용의 움직임 특성 분석-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이매방류 승무를 중심으로.『한국무용기록학회지』, 6: 1-28.

강성범, 김현주(2007). LMA분석을 통한 강선영류 태평무의 움직임 분석.『한국무용기록학회지』, 12: 1-20.

김재리(2004). LMA를 통한 처용무의 움직임 분석.『한국무용기록학회지』, 7: 1-33.

박수잔나(2011). 피나 바우쉬 〈Waltzer〉 중 왈츠 움직임의 특성 연구-궁중무용 왈츠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한국무용기록학회지』, 22: 43-58.

박윤희, 이현정(2013). 신문 기사를 통해 본 한국 볼룸댄스의 고찰: 195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한국체육사학회지』, 18(1): 77-95.

유화정, 전하윤. (2018). Effort-shape 이론을 통한 남·북 기본춤의 움직임 비교 분석 : ≪박금슬 기본춤≫과 ≪최승희 기본춤≫을 중심으로.『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237-254.

윤선자(2005). 1950년대(1953~1961) 사교댄스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도의(道義)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223-254.

윤지은(2018). 대학무용교육에서 라반움직임이론 교육의 필요성-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무용예술학연구』, 71(4): 83-104.

윤지현(2017a). 현대 도시민속으로서 한국 사교춤에 대한 문화상호적 접근.『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1): 175-195.

_____(2017b). 한국 사교춤동호회의 인터넷 매체활용에 대한 연구: 소통과 아카이빙 측면을 중심으로.『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3): 89-106.

이경희(2016). 무용동작치료에서의 움직임 평가의 의미-라반동작분석법을 중심으로.『무용예술학연구』, 60(3): 123-138.

주창윤(2009). 1950년대 중반 댄스열풍: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한국언론학보』, 53(2): 277-299.

한상호(2016). 한국댄스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디지털융복합연구』, 14(3): 45-54.

황희정(2013). 댄스클럽기사를 통해 본 한국의 대중춤: 도전과 퇴폐의 경계선.『우리춤과 과학기술』, 23: 123-144.

마카홍의 댄스사랑. 〈http://blog.daum.net/macaohong, 2019. 12. 20.〉.

사랑모 사교댄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Xs2F, 2019. 11. 30.〉.

사즐모 다음카페. 〈http://cafe.daum.net/leeju9009, 2018. 11. 12.〉.


www.kci.go.kr

삶의 활력 사교교실. “지루박의 개요와 역사”. 〈http://blog.daum.net/shinhs-51/11822929, 2019. 12. 10.〉.
실버iTV. “지루박”. 〈https://www.youtube.com/watch?v=YH5vX5Zz9FA, 2018. 5. 20.〉.
실버iTV. “일자지루박”. 〈https://www.youtube.com/watch?v=BYGwoDQy790, 2018. 5. 20.〉.
실버iTV. “246 중박 부르스”. 〈https://www.youtube.com/watch?v=ru9N0MGwMpY, 2018. 5. 20.〉.
실버iTV 스타Show 리듬댄스. “사교댄스”. 〈https://tv.naver.com/v/1019304/list/87846, 2018. 5. 30.〉.
아사모생활댄스연합회. 〈http://cafe.daum.net/kooja1950, 2018. 12. 10.〉.
“부산난쿵난 일명 비석춤”. 〈https://www.youtube.com/watch?v=VS_b85e1wSg, 2019. 11. 12.〉.
“사교댄스(지루박/지루박)의 이해와 무도학원 이야기”. 〈https://blog.naver.com/mylive5000/221394526171, 2018. 11. 20.〉.
“전통춤의 명인 6명이 펼치는 한국 춤의 진수”. 〈http://parisjisung.com/bbs/board.php?bo_table=bo_57665&wr_id=9&page=5, 2019. 12. 20.〉.
Wikipedia. *Blues Dance*. 〈https://en.wikipedia.org/wiki/Blues_dance, 2019. 1. 20.〉.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Foxtrot*. 〈https://en.wikipedia.org/wiki/Foxtrot, 2018. 8. 20.〉.
*The Jitterbug Dance (1940's)*. 〈http://www.mortaljourney.com/2011/01/1940-trends/jitterbug-dance, 2018. 10. 22.〉.
*Waltz Steps*. 〈https://www.centralhome.com/ballroomcountry/waltz_steps-1.htm, 2018. 11. 20.〉.

논문투고일 2020. 2. 15.
심 사 일 2020. 2. 21.
심사완료일 2020. 3. 11.

www.kci.go.kr

**Abstract**

# A Study on 'Koreanization' of Koreanized Social Dance Based on LMA

**Yoon, Ji-Hyun**
President, Dance & Media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ization' of Koreanized social dance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ovements. The study looked at these characteristics with the effort-shape theory of 'Laban Movement Analysis'(LMA), an analysis for studying the qualitative elements of movements. Three features of Koreanization of the dances are identified. First, unique repertoires such as jirubak, burus and teuloteu have been created, and these are enjoyed only in Korea. Second, transformations of steps and movements are continued, and independent cycles such as emergence, spread, and decline of new repertoires are observed. Third, in the movements of Koreanized social dances,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are observed. The movements that show Koreanization are 'declined posture and knee bending,' 'immersing in dance without movements,' and 'improvisation caused by alternate beats.'

Keywords: Koreanized social dance(한국사교춤), Globalization(세계화), LMA(라반동작분석). Effort-shape(에포트-셰이프), Interculturalism(문화상호주의)

www.kci.go.kr